



즉시 배포용: 2017년 6월 1일

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뉴욕 주지사, BROWN 캘리포니아 주지사 및 INSLEE 워싱턴 주지사 미국 기후 동맹 결성 발표**

***Cuomo, Brown 및 Inslee, 공동 위원장을 맡고 기타 주의 동맹 가입을 촉구***

Trump 대통령이 파리기후변화협약(Paris Climate Agreement)으로부터의 탈퇴 선언에 대응하여 뉴욕 주지사 Andrew M. Cuomo, 캘리포니아 주지사 Edmund G. Brown Jr. 및 워싱턴 주지사 Jay R. Inslee 는 오늘 미국의 기타 주들을 회합하여 파리기후변화 협약을 옹호하고 기후 변화에 적극적인 조치를 하는 연합인 미국 기후변화 동맹(United States Climate Alliance)의 결성을 발표하였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파리기후변화협약(Paris Climate Agreement) 탈퇴라는 백악관의 무모한 결정은 미국뿐만 아니라 우리 지구에 파괴적인 엄청난 결과를 초래합니다. 이번 행정부는 지구 온난화에 대한 전 세계적인 대항에서 자신의 리더십을 포기하고 다른 국가의 뒤로 물러섰습니다. 뉴욕주는 워싱턴 정부의 무책임한 결정에 상관없이 파리협약에서 제시한 기준 준수에 전념하려고 합니다. 뉴욕주는 과학과 지구 온난화의 현실을 무시하지 않을 것이며 이것 또한 제가 우리 시민, 우리 환경 그리고 우리 지구를 보호하는 역할에서 우리의 리더십 지위를 확인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는 원인입니다.”

미국 국내 총생산(Gross Domestic Product, GDP)의 5분의 1 이상 책임지고 있는 뉴욕, 캘리포니아 및 워싱턴은 배기가스를 2005년의 26~28%로 낮추는 목표 달성과 연방정부의 청정발전계획(Clean Power Plan)의 목표 달성 혹은 초과에 전념합니다.

**Brown**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통령은 기후변화가 거짓말이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과학적이고 전 세계적인 의견과 정반대됩니다. 저는 미국에 있어서, 나아가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진실과 싸우는 것은 좋은 전략이 아니라고 믿습니다. 만약 대통령이 이렇게 중요한 인류의 노력으로부터 무단 탈퇴하려고 하면 캘리포니아와 기타 주들이 나설 것입니다.”

**Inslee**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기타 주지사들과 함께 나서서 D.C. 정부의

무대책 조치에 여러 주의 동등한 힘으로 맞설 수 있어서 자랑스럽습니다. 오늘 대통령의 발표는 전국의 주와 도시들의 기후변화 조치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저버렸습니다. 대통령의 조치로 우리 아이들과 그 후대들의 지구를 보호하는 데 필요한 작업에 부끄러운 상황에서 우리 주들은 계속하여 이전에 해왔던 일을 할 것입니다.”

뉴욕, 캘리포니아 및 워싱턴 주의 총인구는 6,800 만 명으로서 전체 미국인의 5 분의 1 에 육박하며 미국 내 온실가스 방출의 10%를 차지합니다. 캘리포니아주는 연방 정부가 남긴 공백을 채우기 위해 지속적으로 다른 주들과 긴밀히 협력할 것입니다.

모든 참여 주의 노력으로 미국 기후변화 동맹은 토론회를 개최하여 기존의 기후변화 프로그램을 이어가고 강화하여 정보와 최적의 경험 공유를 촉진하며 새로운 프로그램을 구현하여 모든 경제 분야로부터 탄소 배출을 줄이도록 할 것입니다.

## 뉴욕주의 기후 리더십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2030 년까지 1990 년 수준보다 40%, 2050 년까지 1990 년 수준보다 80%의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목표를 가지고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목표를 수립했습니다. 이 목표들을 통해 뉴욕주는 미국 내에서 기후 변화 대처를 이끄는 주로 되게 했습니다.

**지역별 온실가스 기획 (Regional Greenhouse Gas Initiative, RGGI):** 동북부와 중서부 주들 간의 성공적인 총량 규제 거래제(cap-and-trade program)인 지역별 온실가스 프로그램(RGGI)의 수립을 주도했으며, 2014 년 지역별 온실가스 프로그램(RGGI)의 탄소 배출 상한량을 45%로 감축하기 위한 노력을 이끌었습니다. 최근에는 2020 년과 2030 년 사이의 상한량을 적어도 30% 감축할 것을 추가로 요청했습니다.

**에너지 비전에 대한 개혁 (Reforming the Energy Vision):** 적극적으로 에너지 혁신을 촉진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유치하며 소비자의 선택권을 개선하면서 깨끗하고 복구력을 갖춘 적정 가격의 에너지 시스템에 대한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종합적인 에너지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청정에너지 기준 (Clean Energy Standard):** 뉴욕주 전기의 50%가 2030 년까지 풍력 및 태양광과 같은 재생 가능한 에너지원에서 배출되어야만 하는 뉴욕주 역사상 가장 종합적이고 야심 찬 청정에너지 법안을 수립했습니다.

**청정에너지 기금:** 청정 기술 혁신에 뛰어 들고 민간 투자를 동원하며 미국 최대의 그린 뱅크 (Green Bank)를 자본화해서 모든 뉴욕 주민에게 확장할 수 있고 저렴한 에너지를 제공하기 위해 시장 장벽을 제거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50 억 달러의 기금을 조성했습니다.

석탄을 사용하지 않는 뉴욕 (Coal-Free New York): 2020년까지 뉴욕주의 모든 석탄 화력 발전소를 폐쇄하거나 새로운 발전소로 재가동하기 위한 공약을 했습니다.

연안의 해상 풍력 (Offshore Wind): 2017년 롱아일랜드 연안 해상에서 미국 최대 풍력 에너지 프로젝트를 승인했으며 2030년까지 2.4기가 와트의 연안 해상 풍력 발전을 위해 전례가 없는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

다음 웹사이트에 더 많은 뉴스가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http://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mailto: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